

## 지독한 부동산 침체

주공 미분양아파트 임대 전환도 별 효과 없어

불황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 
최악의 침체기를 맞은 광주·전남  
주택시장이 대한주택공사의 '아파트 매입·임대사업'이란 카드에도  
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

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2일  
“광주시 남구 진월 2차 고운하이  
플러스 아파트 84㎡(전용면적·학  
장형) 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 
을 시작한 결과, 첫날 32명이 접수  
하는데 그쳤다”고 밝혔다.

이 아파트는 주공이 지방 미분  
양 아파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  
고 있는 아파트 매입후 임대하는  
사업의 광주지역 첫 대상으로, 입  
주자 모집전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 
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.

입주자 신청을 받기 전까지만  
해도 광주지역 최고 학군이 인접  
한데다 저렴한 전세 가격 등이 주  
목을 받으면서 ‘입주 자격’, ‘전세  
조건·가격’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

광주 ‘고운하이플러스’

첫날 32명 접수 그쳐

하루 평균 200통 가까이 걸려오는  
등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.

주공측은 완공된 지 1년도 지나  
지 않은 ‘새 집’으로, 우수학군이  
인접하고 전세 가격(1억~1억200  
만원)도 주변 시세보다 30% 정도  
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수요  
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.

주공이 ‘집주인’이라는 점에서  
‘언제든지’ 해약이 가능하고 경기  
침체로 나가려는 세입자의 전세금  
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없  
을 것이라는 장점도 접수율을 올  
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.

하지만 주택 경기가 가라앉은  
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실  
제 매수까지로는 이어지지 않아  
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그대로

반영했다.

이에 앞서 지난 연말 전남에서  
는 처음으로 실시한 목포 신안인  
스빌 아파트 85㎡(전용면적) 200  
호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·임  
대 사업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 
전세 가격에도 128명만 신청하는  
저조한 접수율(64%)을 기록했다.

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 
는 “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기  
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”면서도  
“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  
세 면제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  
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  
다”고 지적했다.

한편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 
미분양 아파트는 1만3천277가구  
로 역대 최고치 수준이며, 시장 전  
망이 불투명해 올해 광주지역 아  
파트 분양 계획을 공개한 업체는  
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/김자율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

눈에 파묻힌 광주

12일 밤 월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이 광주시 동구 대성학원 일대를 뒤덮고 있다. 광주·전남지역은 이날 하루동안 최대 11.2cm의 눈이 쌓이면서 수은주도 곤두박질쳤다. 이로 인해 13일 아침 출근길도 빙판을 이루고 교통체증을 빚었다.

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광주·전남 적설량
광주 11.2cm
영광 11.0cm
목포 6.0cm
순천 5.4cm
완도 1.8cm
진도 1.7cm

## 雪… 雪… 雪… 폭설 사흘째

항공·여객선 결항… 기습 한파 잇단 사고도

지난 10일부터 광주·전남지역에  
사흘째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와 여  
객선의 운행이 중단되고, 주요 도로  
가 통제되는 등 출근길 교통 대란이  
발생했다. 또 빙판길 교통사고와 수  
도계량기 등과(凍破) 등 기습 한파로  
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다.

/관련기사 6면

광주·전남지역은 13일에도 강한  
바람을 동반한 눈발이 예상돼 각별한  
주의가 요구된다.

◇‘강추위’ 기상특보=광주방기  
상청은 12일 “광주·전남지역에 내려

진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를  
기해 모두 해제됐지만, 찬 바람이 강  
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이 크게 떨어지  
는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”며 “13일  
오전까지 광주와 목포, 함평, 영광지  
역 등에 1~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 
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추위는 16일부터 서서히 풀려  
평년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. 지난 10  
일부터 12일까지 내린 눈은 광주가 20  
cm로 가장 많았고, ▲영광 11cm ▲목포  
6cm ▲순천 5.4cm ▲완도 1.8cm 등이다.

◇여객선·항공 결항 등 주요도로

‘통제’=광주지역은 지난 11일 밤부  
터 도심과 외곽을 오가는 버스 23개  
노선이 단속 운행되거나 우회도로를  
이용하고 있다. 광주공항에선 12일  
오전 7시에 출발할 예정이던 김포행  
KE 1300편이 결항되는 등 모두 5편  
이 결항됐다. 항공기 운행은 이날 오  
전 8시를 기해 재개됐다.

전남지역에선 구례와 곡성, 진도,  
자리산 성삼재 등 고갯길 4곳이 통제  
됐으며, 해상에선 높은 파도와 강풍  
으로 48개 항로의 연안 여객선 72척  
의 운행이 중단됐다.

◇빙판길 교통사고=지난 오후 8  
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 호남

대학교 인근  
도로에서 윤모  
(55)씨의 승용  
차가 빙판길에  
미끄러져면서 전복됐다.

이 사고로  
운전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  
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. 광주·전남에  
서는 이날 하루만 6건의 눈길 교통사  
고가 발생했다.

◇동파 피해 속출=연일 내린 눈으  
로 광주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 
면서 동파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주민  
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.

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 
이날 오전부터 모두 7건의 수도계량  
기 동파 신고를 접수해 계량기를 교  
체하는 작업을 벌였다.

/이종현·김현호 기자 golee@

## 한·일 정상 “여수박람회 성공 협력”

이명박 대통령과 야소 다로(麻生 太  
郎) 일본 총리는 12일 양국이 미래지  
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올  
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서로 이  
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.

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 
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한

일 FTA(자유무역협정) 협상재개 문  
제에 대해선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  
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  
출되길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.

/관련기사 5면

특히 양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과  
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

로 하는 한편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  
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 
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양 정상은 ▲2012년 여수  
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 
▲치앙마이 이니셔티브(CMI) 다자화  
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 확대, 역내 간  
시기구 설립 적극 추진 ▲관광취업사  
증제도 보완 및 이공계학부 유학생과  
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  
확대 등에도 합의했다.

/연합뉴스



##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… 中 수출 물류 차질

여수와 광양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 
나흘째 화물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 
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(설)를 앞두고  
선적해야 할 물량이 폭증하는 상  
황에서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선적  
에 차질이 빚어지고 최악의 경우 위  
약금을 물어야 할 혼란이라는 것이다.

여수운송협의회와 화물연대는 12  
일 오후 4시 여수운송협의회사무실에  
서 최근 유가락에 따른 운송료 인  
하폭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  
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.

이에 따라 여수산단에서 광양항으  
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

250여대 중 170여대가 나흘째 멈춰서

는 등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

우려가 커지고 있다.

현재 여수운송협의회는 이번 파업  
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 80대를 모두  
가동하고, 외지의 차량을 대체 투입  
해 물류 차질을 최대한 막고 있다. 하  
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  
기화할 경우 일부 여수산단내 업체는  
물론, 중국 수출 물량 수송에도 적잖  
은 차질이 예상된다.

운송협의회 관계자는 “중국 하역  
노동자들이 춘절을 전후해 보름가량  
하역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오는  
20일까지 중국 수출 물량의 선적을  
마무리해야 한다”며 “이번 주까지 운  
송거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  
들의 손해는 물론이고, 자칫 국가 신  
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”고  
말했다.

/이종현기자 golee@kwangju.co.kr  
/여수=박양규기자 ykpark@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

접수마감: 2009년 1월 15일 (목)

제44회 광주일보  
3·1절 전국마라톤대회  
http://marathon.kwangju.co.kr 062-220-0541